

가정 예배 모범

- 2020_10_18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0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도와주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찬송 382장(구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시편 28:1-9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시인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1, 7-8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자 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언약 속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변치 않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구주이십니다. 혹시 내 앞에 당면한 문제에 파묻혀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시다.

2)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6절)?

다윗은 자신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악을 갚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4, 5절)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9절)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면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